

2 뉴스

# ‘폐지’시험대 오른 제2외국어 의무 이수제

정예은 기자 yegold@khu.ac.kr

【국제】외국어대학 학생회(외학)가 제2외국어 강의 의무이수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외국어대학(외대) 재학생의 교양과목 선택 폭을 넓히고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제2외국어 강의 의무이수제는 외대 학생의 경우 교양 배분이수교과 인문사회도대영역에서 제1전공 언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3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제도다. 3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유예로 처리된다.

더불어 외대 내 일부 학과에서는 특정 전공기초과목이 배분 이수 영역 중 인문사회도대 영역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제2외국어 강의 역시 인문사회도대 영역으로, 동일 영역의 강의를 2번 수강하게 됨으로써 외대 학생들은 타 단과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졸업 학점을 채우기 불리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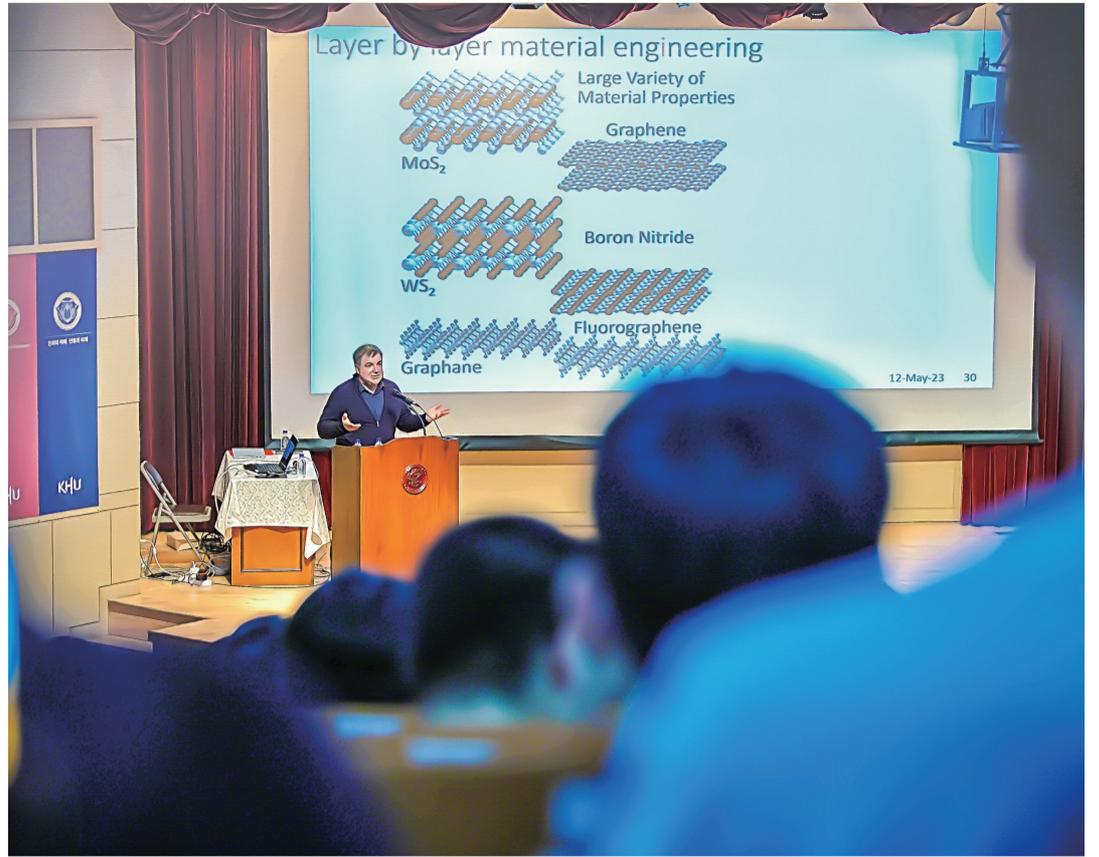
해당 제도는 현재 외대 내 7개 학과 중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일본어학과 재학생에게만 적용된다. 제2외국어 의무이수제는 외대 내 사안으로 학과 내에서 자율적으로 합의와 조정이 가능하다. ▲중국어학과 ▲한국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는 학과 내 모든 교수진의 합의하에 2023학년도부터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해당 제도를 유지 중인 네 학과는 교수진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폐지되지 못한 상황이다.

외학 측은 지난 5월 10일부터 11

일까지 외대 내 강의실을 돌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와 관련한 만족도 설문문을 대면으로 진행한 바 있다. 제2외국어 의무이수제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묻는 항목에 총 응답자 242명 중 찬성 28.1%, 반대 71.9%의 결과가 집계됐다.

제2외국어 강의 의무이수제 폐지 안건을 포함한 외대 내 대부분의 학사 관련 사업들은 주로 미래발전위원회(미발위) 내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해당 제도 폐지 안건 역시 지난 6월 1일 진행된 제2차 미발위에 상정됐다. 미발위에 참여한 각 학과별 학생 대표들은 해당 안건에 동의하는 입장이 다수였다. 하지만 교수진들은 당장 확답을 주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학과 내에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외학 SNS 계정에 진행 상황이 공유될 예정이다.

윤서인 외학 학사처장(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1)은 “한 학기 동안 새로운 언어를 배웠다고 해서 해당 언어에 대한 사고가 확장되거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윤 씨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학우들이 배워보고 싶은 다양한 과목을 배워볼 수 있다”며 “해당 안건에 대해 확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과 컨택해 학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Konstantin Novoselov 교수가 오비스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커뮤니케이션 센터 제공)

## 노벨상 노보셀로프 교수 강연

한주현 기자 1hji@khu.ac.kr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Konstantin Novoselov 교수의 특별 강연이 5월 12일 오비스홀에서 진행됐다. 이과대학 교수들과 양자 기술 및 차세대 반도체기술 연구 협력방안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Novoselov 교수는 맨체스터 대학교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

수로 차세대 신소재 그래핀을 발견해 2010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Materials for the Future’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은 그래핀과 물질에 관한 내용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노벨상 수상자라는 인지도를 반영하듯 강연장은 많은 학생들로 채워졌으며 강연 마지막에는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강연 후에는 우리학교 연구팀과 구체적인 국제 공동 연구 수행 방안을 향후 학생 및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연구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번 특별 강연과 연구 협력 논의는 물리학과 손석균 교수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물리학과에 부임한

손석균 교수는 과거 Novoselov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최근까지 그래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물리학과 김영덕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미래기술 연구실도 Novoselov 교수 연구팀과 이차원 소재 기반 양자 광원 연구를 공동 수행 중이다.

강연에 참여한 오소민(정보디스플레이학 2021) 씨는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한다는 것 자체부터 흥미롭고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웠다”며 “그래핀에 대한 지식이 많지도 않고 영어 설명을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래핀을 발견한 교수님의 강연을 듣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말고사만큼 중요한 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기간**  
'23. 5. 23.(화) 9시 ~ 6. 22.(목) 18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가능**

**재학생 반드시 1차 신청**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  
'23. 5. 23.(화) 9시 ~ 6. 22.(목) 18시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서류제출 및 가류원용일**  
'23. 5. 23.(화) 9시 ~ 6. 29.(목) 18시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신청방법**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하세요!**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 ① 공인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 ③ 간편인증(신한인증서, 카카오뱅크, 명크레디트, 통신패스, 8나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토스, KB인증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 (누리집)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모바일 앱) 장학금 ▶ 서류제출

\* 장학신청일 당일 접속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